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금년 여름공동체생활은 7월 29일-30일(금, 토) 저녁 모임과 31일(일) 주일 예배 중심으로 모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다시 알려드립니다.
- 제67기 공동체지도력훈련을 23일(토) 오후 2시부터 25일(월) 저녁 10시까지 진행합니다. 숙박은 주일(24일) 저녁에만 합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하십니다.
- 오늘부터 점심 공동식사를 합니다. 당분간은 실외에서 간단한 음식을 나눕니다.
- ‘교회로 소풍가요’ 날에 촬영한 가족사진을 식사 후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휴가철을 맞아 오가는 청년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주십시오.
입국(임성경, 요르단에서) 출국(박예찬, 스위스로)
- 멧쟁이학교 종강발표회가 9일(토) 저녁 7시30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태일 목사 · 이월영 사모 (칠순 감사) 가정

강단을 꽃으로 : 이종옥 집사 가정 (어머니 기일)

주일 교회 송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27 호

2022년 7월 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더웠던 여름공동체생활을 추억하며

최근 성서일기 범위로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집트에서 극적으로 탈출하였고,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번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고, 결국엔 인구조사를 받은 어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란 선언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40년간 중동의 광야를 누비면서 살게 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형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뜻에 순종하는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훈련은 기본자세나 동작 따위를 되풀이하여 익히는 것, 또는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 활동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생활 40년이라는 긴 과정을 내리셨습니다. 그것도 세대교체가 동반된, 목적이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으셨습니다. 그 후손을 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도 무작정 데려다 놓는 것만이 아닌,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어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일꾼으로 부림을 받고 다신교적 문화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은 온 이집트를 뒤덮은 주님의 권능을 목격하며 탈출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과정에서 있었던 기적들의 향연은 전무후무한 규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며 인도하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경악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의 잘못은 이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는 기준 미달에 시기상조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긴 과정 끝에,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는 자신들에게 약속된 땅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훈련 끝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부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떤 행동은 반드시 그때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뒤에는 어떤 약을 처방해도 무의미하고, 삼세판이란 말은 가위바위보를 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방공동체에서는 주기적으로 갖는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방공동체생활'입니다. 짧게라도 함께 생활하며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공동체적인 삶, 코이노니아를 훈련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지도력훈련'을 포함하여 이 모든 과정은,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한 번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시간으로 채우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관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헝클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가갈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그러셨듯, 깨어진 관계를 재형성하십니다. 그렇기에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다가가는 훈련을 통해 주님께 순종하는 인격을 갖추수록, 우리의 삶 또한 기독교적으로 될 것입니다.

일 년 중 땅 위에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7월입니다. 여름공동체생활을 떠올리며 벌써부터 그리워하게 되는 시기지요.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때때로 우린 주님을 잊곤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있다 보면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긴커녕, 화두조차 꺼내기 어렵지요. 저 또한 교회가 없던 GOP 군부대에 있을 때 그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며칠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럴 수 있으랴? 하면서 휴가를 열심히 맞춰 나왔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진지한 자리, 서로를 위한 기도 속에 정감이 오가는 자리, 더위에 땀 흘려 부채질하면서도 진실한 축복을 입에 담는 자리, 제가 기억하는 여름공동체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이런 장에서 함께 의미 있고 감동적인 시간을 다시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2022년도 여름을 살아냈던 인생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추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 말씀

“ 구름이 성막 위로 걷혀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
 < 민수기 9장 1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민수기 22장 41절~ 23장 30절

제목 :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다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540 595 450

1-12 발람의 첫 번째 예언

해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다.

적용: 내 생각과 판단으로 말하지 말자. 잘 모를 때에는 조용히 기도하자.

13-26 발람이 두 번째 장소에서의 예언

해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신다.(지키신다.)

적용: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끝까지 이루심을 믿자.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약속(사명)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르자.

27-30 발람이 세 번째 장소에서

해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힘에 굴복/타협하지 않는다.

적용: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자.

세상의 힘(돈, 직장, 학업, 정,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신앙)을 미루지 말자.

성서일기

기억을 지워가시는 올 아버지

치매란 대뇌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지능, 의지, 기억이 지속적으로 본질적으로 상실되는 병이다. 구순이 지나신 아버지가 점점 기억을 하얗게 지워가고 계신다. 평생 7女 1男의 자식을 키우느라 직장과 농사일을 병행하며 고생하셨던 아버지. 동네에서 칠 공주 집이라 부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며 딸들을 최고로 여기셨던 아버지. 아버지 퇴근 무렵이면 마을 어귀에 마중 나온 딸들을 자전거에 줄줄이 태워 끌어주시던 아버지. 친척들이 집에 머무는 날이면 앞마당에 멍석 깔아 노래자랑을 시켜 자식의 기를 살려주셨던 분. 출산과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시던 엄마를 위해 집안일을 틈틈이 도와주셨던 아버지. 그러면서도 월급날이면 자식들 몰래 엄마에게 짜장면을 사주셨던 센스 있는 아버지. 막걸리 좋아하시는 것 빼고는 나무랄 게 없다는 엄마 말씀대로 다정하고 가정적인 아버지였다. 요즘 그런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심해져 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10여 년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아버지는 치매약 한 알부터 드시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치매 진행에 가속이 붙어 최상의 약 처방이 소용 없을 만큼 심해져서 자식 이름과 얼굴을 연결 못 하시거나, 오랜만에 온 사위는 누구시냐고 묻기도 하시고 조금 전의 일들을 금세 지워 기억을 못 하신다. 인지능력도 떨어져 동네 산책을 나가셨다가 집을 못 찾아와 경찰이나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오시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혹여 집을 잃거나 사고가 날까 염려스럽고, 내년이면 구순인 엄마가 아버지를 감당하시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힘들어하셔서 다음 주에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하기로 결정했다.

그 기념으로 동생들과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1박 2일의 바다 여행을 떠났다. 아버지 기억 속에 바다를 보는 것이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잔해 함께 추억의 시간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차를 타고 여행 가는 것이 어린애처럼 마냥 좋아서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를 소리쳐 부르시는 아버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최희준씨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여기까지 기억이 안 난다며 같은 가사를 몇 차례 반복적으로 부르시는 아버지. 차창 밖 먼 산을 바라보다 고갯길이 나오면 "포천이나 축석고개냐" 지속적으로 물으시는 아버지. 그래도 다행히 막걸리 한잔에 행복해하시고, 무엇이든지 잘 드시고, 걸어 다닐 수 있으셔서 다행이고 이런 아버지가 아직 우리 곁에 있어 주셔서 행복하다.

다만 바라는 건 언젠가 아버지가 자식 이름과 얼굴을 다 지워 버리기 전, 누구의 도움 없이 거동이 힘드시기 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이생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 가시길 기도하고 있다. 아버지의 생의 마지막 여정을 주님께 의탁드린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칠 공주들의 아버지여서 감사합니다.

선교공동체 강춘자 권사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편 144 : 1-2

인도자

1

다함께

인도자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3 : 14-16

인도자

246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 훈련하시는 하나님, 명심하십시오 ” 정태일 목사

민수기 9 : 15-23

설교자

349

공동체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35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516(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나송주 이윤희 / 봉헌위원 : 김영화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저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때마다 저희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십시오. 아멘.

훈련하시는 하나님, 명심하십시오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걷혀 올라 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17>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떠나거나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매우 불편하고 불안정한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하신다. 신명기에는 이러한 광야생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신8:2,5> 본문을 포함하여 민수기에서 소개하는 사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의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교회, 신앙공동체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훈련하시는 하나님, 명심하십시오. 훈련은 몸에 익히는 것이고, 때로는 타율에 의한 것이며, 고난이 따르고,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생활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훈련을 많이 하고 잘 한 개인과 집단은 강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의 공동체생활에서도 훈련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순종하여 따르십시오.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강춘자 권사

수요기도회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월초에 지산이 아버지 병원을 방문한데 이어 수요일에는 하온이, 하성이 아버지 권재만 목사님을 만나러 정오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꾸러기, 다녔으나 기억이 잘 안나는 꾸러기, 다니지 않은 꾸러기가 함께 참석해서 찬양을 따라하고 성경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왜 목사님이 되셨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힘든 건 없으신지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습니다. 목요일에는 가람이 아버지를 만나러 고양시청에 다녀왔습니다. 꾸러기들은 또 같은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습니다. 꾸러기차를 타고 이야기를 나누며 아버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든 환자를 잘 치료할 수는 없어 힘드신 지산이 아버지를 위해서는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몸은 좀 피곤하나 변기 뚫기나 학생들 가르치기나 어떤 일이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면 기쁘게 할 수 있다는 하성이, 하온이 아버지를 위해서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어떤 정책이든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어 어느 한 쪽은 불만이 생기는 걸 힘들어 하시는 가람이 아버지를 위해서는 지혜를 더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꾸러기들과 우산을 쓰고 산책을 해보려합니다. 목요일 오후에 그 기회가 왔습니다. 고양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간에 여유가 생겨 중남미 문화원 미술관과 박물관을 둘러보았습니다. 들어가는 길에도 비가 꽤 왔고 발이 좀 젖었지만 뭐 불편해서 둘러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우산을 써본 경험이 적은 꾸러기에게는 손으로 어디를 잡아야하는지 우산을 어떤 높이로 어느 방향으로 들어야하는지를 알려주며 걷습니다. 간식으로 멕시코 음식을 맛보고 나오는데 길이 개울로 바뀔 만큼 비가 와서 장화가 아닌 신발은 다 젖고 우산을 쓰고도 옷과 머리가 젖습니다. 그래도 깔깔 웃으며 재미있어하며 꾸러기 차까지 걸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는 한주 내내 비가 왔습니다. 매일 많은 비에 마음은 무겁고 몸은 젖어 있었습니다. 공동체학교 중 비가 온다는 것을 가장 피부로 깊이 느끼는 학교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항상 걱정이 되고 아쉬

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 오고 주말에 안온데. 그리고 다음 주 주중에도 비가 계속 오고 주말에 또 안 온다는데~?”

“그래요?”

“그래도 주말에 비가 안 온다니 다행이지?”

“아~휴! 싫어요! 친구랑 놀아야 하는데 놀지 못하잖아요!?!”

이 대화를 하며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애정과 친구들과의 친밀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박물관에서 학교에 가기 싫은 아이가 울며 떼쓰는데 엄마의 손에 이끌리어 학교를 가는 사진이 떠오릅니다. 모두가 귀찮고 힘든 학교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니... 오늘도 행복한 어린이학교입니다. < 교사 : 권재만 >

멋쟁이학교

멋쟁이들은 이번 주에 있을 종강 발표회와 면담 준비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학기말이기 때문에 교과 과목 마무리를 위한 공부와 숙제도 열심히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마로 한 주간 비가 많이 내렸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실내 교실과 교육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비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이 없어 다행이었어요. 특별히 아침운동은 실내에서 하고 노작은 자율학습시간으로 바뀌어서 아이들은 더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

지난 목요일에는 10주 동안 진행되었던 공동심화학습 마무리 발표와 자율평가서 작성을 통해 1학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율평가서는 인격, 신앙, 재능, 지도력, 관계, 내적안정, 자율능력, 체력, 공동생활, 3정 생활, 자치활동의 참여, 섬기는 생활의 실천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같은 학과학습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멋쟁이 자율 평가서는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다는 점과 학과목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면들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학년들은 처음 적어보는 자율 평가서라서 어려워했지만, 고학년들은 제법 잘 적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말면담과 종강발표회가 있습니다. 짧고도 긴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 < 교사 : 박예나 >

장마 풍경

지난 몇 달간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걱정하며 지냈습니다. 길어지는 가뭄에, 농작물은 많이 말랐고, 고모리 저수지에 물이 줄어서 수위가 내려가는 것을 볼 때마다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여기 무림리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많은 비가 예상이 되어서, 마당의 배수로로 파내고, 2층 배수구 주변 청소를 하면서 비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비가 쏟아져서 세워두었던 천막 하나가 지붕에 물이 고이면서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그만 부러지고, 휴게실 대신에 쳐 두었던 어린이학교 대형 텐트 역시 많은 비를 견디지 못하고 텐트 팩이 뿔뿔이 부서지면서 무너져버렸습니다.

약 5일간을 퍼부은 비는 다행히도 주말을 지나면서 맑게 개였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후의 하늘은 정말 맑고 햇살도 째짤했습니다. 다음 주도 장마가 예상된다고 하니, 이번에는 제대로 잘 대비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멧쟁이 학생들이 고생입니다. 점심때는 교육관에서 식사를 하기에, 배식할 음식들을 모두 날라야 하는데, 이번 비에는 우산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어서 한 명이 음식 바구니를 들고, 또 다른 한 명은 아예 테이블에 사용하는 파라솔을 들고서 주방과 교육관을 오가며 비를 막아 줍니다. 며칠을 그렇게 하더니, 이제 요령도 느는 법인지, 다들 무릎까지 바지를 걸어 붙이고 손발이 척척 잘 맞아갑니다. 그래도 아침 운동은 비가 오면 실내에서 간단하게 하게 되니, 학생들은 비 내리는 것이 반가운 눈치입니다.

비가 오면 마당의 나무들과 밭의 작물들의 색깔이 더욱 생생하게 살아나서, 자연예배당 바깥으로 비치는 풍경은 우리가 어디 필리핀 우림 지역에 와 있는지는 않은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비가 오면서 눅눅한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식물과 흙내음이 더 풍기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는 익숙합니다. 시골살이가 벌써 20년째가 되면서 이제는 비로 인한 불편함은 별로 못 느낍니다. 오래히 자연 예배당 지붕에서 물 떨어지면, 바가지 갖다 놓고 흙바닥이라서 생겨나는 물웅덩이와 개구쟁이 아이들이 파 놓은 물구덩이에 가끔 발을 적셔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온 세상이 깨끗해진 느낌입니다.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면서 복잡했던 여러 가지 생각도 함께 씻기면 좋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요한복음 15장 1~12절

인 도 : 권재만 목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 생명 경시 현상 >

미국의 낙태법이 개정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으며, 임신중절을 돕는 약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상황은 출산율이 낮는데 비해 산부인과가 많고 이곳에 사람들이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이지만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들은 신생아 출생의 4배가 된다고 합니다. 생명을 그 어떤 가치보다 귀중하게 여기도록, 성교육이 잘 이루어져 이런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 미리 잘 준비하는 다음세대 되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예수원 >

1. 중보기도의 사명자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새로운 기름부음이 있도록,
2. 4월부터 시작된 79기 3개월 훈련기간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형제자매들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3. 올해로 예수원 홈스쿨 3년째 시작합니다. 특히 올해는 중등학생 5명, 고등학생 1명인데, 지도하는 교사들과 다음 세대 의원들 안에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다음세대와 어르신 >

- 푸러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 인치명 권사님 다리 정맥 수술이 잘 되어 건강 잘 회복하시도록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정말 무섭게 비가 내린 한 주였습니다. 중간에 바람도 거세게 불어 나무들의 가지가 바닥을 다 덮을 정도로 많은 비와 바람이 공동체를 휩쓴 주간이었습니다. 비에 대비해서 배수로를 정비한 덕분에 큰 비 피해는 없어 참 다행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공동체 식구들이 모여 이월영 사모님 생신 축하도 하고 잠깐 비가 그친 토요일에는 새벽 일찍 부터 밭을 정비하고 당근을 수확하는 작업도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비 소식이 있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모두 별 탈 없이 이번 장마를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